흑색얼음낚시

(마4:1-23)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흑색얼음낚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흑색얼음낚시'
얼음낚시는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게 되면 강이나 냇가에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얼음 밑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얼음낚시입니다.
캐나다의 알버타주 같이 추운 지방에서는 이 얼음낚시라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있다고 합니다.
전 아직 직접 얼음낚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얼음은 얼음인데 흑색얼음, 흑색얼음이 어는 강이나 냇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흑색얼음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여름에 먹는 빙과류나 아이들이 먹는 쮸쮸바 같은 것들은 색깔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오렌지색, 키위색, 포도색깔 등, 다양하고 또 커피를 집어넣으면 커피색깔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흑색 염료가 들어간 얼음, 온 강가나 호수가 다 흑색 염료가 들어간 얼음으로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 밑에서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어둠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흑색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마태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메시아의 영적 정체를 분명히 깨달은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관된 비전이 마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참 메시아의 모습을 경험한 뒤에 몇몇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때에 관한 이야기들, 자료들을 앞에 놓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 비전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에 물러가서 사신 것',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광야의 시험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에 의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 물러가서 사시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그 장면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연결되면서 눈앞에 비전으로 펼쳐지는데,
"와! 온 세상이 다 흑색얼음으로 가득 덮여 있는 가운데 따스한 천국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이 가 계시는 곳마다 하늘의 빛이 그 흑색얼음을 깨고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비전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얼음에 덮여있는 가운데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앞의 3장에서는 우리가 '자녀 되기 삼세판'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권을 뚫고 들어가시면서 그 지배권을 뚫으시기 위한 과정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이 독사의 지배력을 뚫고 들어가시는 과정이 시험받은 사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받으신 뒤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사건을 마태는 어두움의 얼음을 뚫고 그 속으

로 빛이 들어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기억해 내면서…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의 실재가 흑색얼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 사탄의 흑색얼음으로 나를 덮고 있는 지배력을 뚫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받으시고 이기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지배력 밑에서 독사의 자식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험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말머리에 아예 이 3단계로 진행된 시험의 특성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상태 이후에 당하신 시험입니다.
이것은 자아형성에 관계되는 시험이에요, 자아형성.
이 흑색얼음 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지배력이 이렇게 미쳤습니다.
자아형성 단계에서 이미 지배력이 작동한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 아니냐? 뛰어 내려라!'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사랑에 관계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아형성 단계에서 사탄이 지배력을 뻗치고, 자아사랑의 단계에서 지배력을 뻗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하는 이 사탄은 자아팽창에 관계되는 지배력을 뻗치는 겁니다.

자아가 형성이 되지요, 형성된 자아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그 자아사랑에 기초해서 자아를 확장, 팽창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흑색얼음 밑에 살고 있는 하늘의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 하에서 흑색얼음 밑에서 살고 있었고, 이렇게 지배 하에서 자아형성을 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팽창시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었고, 이씨 조선 때도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뭘까요?
자아형성,
여러분, 복음서를 이해할 때,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세계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뭡니까?
인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공중의 차원에 있습니다.
공중이 있고 공중 위에 천국, 하늘이 있습니다.
보좌가 펼쳐진 하늘이 있고, 그 밑에 공중이 있고, 그 밑에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있는 이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도 이 몸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의 형성이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탄이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력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아를 형성할 때에 몸을 중심으로 자아를 형성하도록 지배력을 뻗쳐나가는 것이에요.
몸을 중심으로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공중에 있는 마음이 몸으로 쏠리게 하고 몸으로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각인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몸이 배가 고프면 마음도 배가 고프게 만들고 몸이 목마르면 마음도 목이 마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각인되게 만듭니다.
몸이 뚱뚱해서 보기가 싫으면 어디를 가나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몸이 팔등신 아름다운 몸매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자신있게 됩니다.
명품백이 내 몸에 걸쳐있지 않으면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명품백을 하나 들면 내 마음에 자신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자아형성이 몸과 연결되어서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각인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사탄의 지배력이 극복된 상태가 며칠 전에 얘기한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고 짝발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가 온 천지를 다니면서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그 딸의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각인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정상인들의 학교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들의 마음에 몸에 의해서 각인되는 사탄의 지배력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얼굴로 누구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각인되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을 각인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는 것을 뿌리칩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력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 얼굴이 화상으로 흉측하다고 해서 내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레나 마리아와 이지선이 함께 통하고 있는 이 자아형성의 방향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몸이 어떠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몸에 구속되고 몸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쏠립니다.
그럴 때 사십 주야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굶주림과 갈증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로 마음의 갈증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몸에 묶여있을 때는 몸이 배고프면 마음도 배고프고 몸이 갈하면 마음도 갈했는데, 몸에 묶으려는 사탄의 지배력을 깨버리고 이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위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을 때,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에 묶여있는 상태와 반대로 내 마음이 성령에 묶여있을 때 내 마음의 배고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배고픔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갈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형성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탄의 지배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각인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장애인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몸의 상태에 의해서 각인되어버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어떻게 이 흑색얼음을 형성해서 그 흑암 밑에서 우리를 살게 하느냐?
이렇게 몸을 중심으로 몸에 묶여서 형성된 자아를 사랑하게 합니다.
'자아사랑'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발.
도발이라는 것은 자극해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연관된 이 도발은 무슨 도발일까요?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자아사랑이에요, 자아사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아를 사랑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아를 사랑해야지 자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자아의식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아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도취되고 하나님께 빠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사실에 내가 자긍심을 갖고, 내가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그러한 나에 도취되고, 그러한 나를 확인하려는 것이 됩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지배력 하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과 관계하다니, 정말 멋지고 훌륭한 나다!' 그 '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아버지의 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몸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됩니다.
이 몸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몸이 달라서 '나와 너'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구분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발전하는 '나',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된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그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들어갈 천국 때문에 믿고, 내가 살아야 될 축복된 삶을 위해 믿고, 그래서 나의 상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도발해서 내 부족한 상태를 채우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도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력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분에서 당신의 하나님아들 되신 신분을 자랑하고 자긍심

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관계 속에서 당신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 몰입했다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 때문에 황홀해지는 것, 나 자신 때문에 황홀해지고 나 자신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력을 깨신 예수님의 흑색얼음에 구멍을 뚫으신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단계입니까? 자아팽창의 단계. 자아확대의 단계입니다.
자아팽창과 확대라는 것은 뭐죠?
자, 몸을 중심으로 '나'라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고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돈도 학식도 다 끌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 영광이란 그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조명을 받으며 아름답게 비쳐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나를 멋있는 남자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도력 있는 리더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내 이미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아픈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이미지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자아확대, 자아팽창의 단계죠.

결국 우리가 다 대동소이하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흑암의 얼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고, 사탄의 지배력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몸에 묶여서 마음이 몸의 상태에 따라 각인되어 사는 사람, 자아형성이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요.

1.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자아형성이 되지를 못하고 이 땅을 향하여 몸을 중심으로 자아형성이 되어서 몸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는 상태.
2.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자아를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 자아사랑, 내가 나에게 도취되는 상태.
3.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자기를 다른 사람 속에 멋있게 확대해 나가고 멋있게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자아확대의 단계.
이 세 단계를 통하여 하늘의 빛이 끊어진 상태로 사탄의 흑암의 얼음의 지배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 단계로 인간에게 실효성을 발휘하며 쳐들어오는 사탄의 지배력을 깨부쉈다는 얘기에요.
흑색얼음에 구멍을 내고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몸과 묶여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몸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빛이 사탄의 흑색얼음을 깨고 그 구멍 뚫린 곳으로 하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낚는 어부가 결국 그 사람 위에 있는 흑암의 얼음을 뚫어주고 몸에 묶여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공중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그 하늘의 빛이 예수님을 장갑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 하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왜 이루어진 겁니까?
마태에 의하면 자아형성의 단계에서 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 풀려나고 하늘에 올라가

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탄의 지배력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의식에 취해 있는 상태, 나를 사랑하고 어떡하든지 나를 키우려고 공부하고 헬스도 하고, 하는 이러한 지배력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인생의 성취와 인생의 비전을 거는 이 단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장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이 흑암의 지배력인 얼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몸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빛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정말 장엄한 광경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비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몸에 묶인 마음이 몸과 연합해서 나로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나를 이 땅 위에서 사랑하고 나에 도취되어서 그 나를 다른 사람 속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흑암의 얼음 밑에서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로 끝내게 하시고 하늘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가득가득 비치는 복음의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